

# ‘무관중 프로야구’ 오늘부터 연습경기

### 최종테스트 성격... 팀당 4경기 '당일치기' 주전급 선수 대거 등장·외국인 선수 주목

휴구장에 격리된 채 훈련했던 프로 야구 선수들이 상대 팀 구장을 찾거나 다른 팀을 안방으로 불러들인다. 코로나19 여파로 움츠렸던 국내 프로야구가 드디어 기지개를 켜는다.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21일부터 탐별 4경기, 총 20차례의 연습경기를 펼친다. 사실상의 시범경기로, 최종 테스트 성격도 띈다.

코로나19 위협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번 연습경기를 통해 프로야구단과 KBO는 이전과는 다른 '뉴노멀(새로운 정상)'에도 익숙해져야 한다. 21일 연습경기부터 경기 중엔 그라운드와 더그아웃을 제외한 모든 구역(클러하우스 포함)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선수들이 습관처럼 하던 맨손 하 이파이브나 악수도 자제한다. KBO는 "마스크 착용과 악수 등은 강력 권고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가 비말로 전파되는 것을 고려해 경기 중에 침을 뱉는 행위는 금지한다.

심판위원은 경기 중 마스크와 위생 장갑을 의무적으로 착용한다.

구단 트레이너와 매니저, 통역 등 선수단과 동행하는 프런트와 볼·베트보이(걸), 비디오판독 요원 등 경기와 관련된 관계자들도 마스크와 위생 장갑 착용이 필수다.

당연히 연습경기는 물론이고, 정규시즌이 개막한 뒤에도 관중의 입장은 불허한다.

선수단과 팬이 접촉하는 행사도 열리지 않는다.

많은 선수가 "팬들이 경기장에 오실 수 없으니 너무 조용할 것 같다. 너무 낮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선수들만큼이나 답답한 생활을 견뎌야 하는 야구팬들에게는 연습경기가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

방송사들은 20차례의 연습경기를 모두 생중계한다. 22일 잠실에서 열리는 키움 히어로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는 지상파 중계가 잡혔다.

경기 수에 제한이 있다 보니, 과거 시범경기 때처럼 '새 얼굴'을 볼 시도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각 구단 감독들 모두 "주전 위주로 연습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롭게 KBO리그에 합류한 크리스 플렉센(두산 베어스), 마이크 라이트, 에런 알테어(이상 NC

다이노스), 닉 킹엄, 리카르도 핀토(이상 SK 와이번스), 드루 카슨, 에런 브룩스(이상 KIA 타이거즈), 맨 스트레일리, 아드리안 샌슨, 덕슨 마차도(이상 롯데 자이언츠) 등 외국인 선수들이 다른 팀과 상대하는 장면은 팬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안길 수 있다.

3월 말에 입국해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한 키움, LG 트윈스, 삼성 라이온즈, ktwiz 외국인 투수들은 연습경기에 등판하기 어렵다.

KBO리그에서 2년 연속 뛰는 한화 외국인 투수들은 미국과 호주에서 개인 훈련을 하다가 입국해 2주 자가 격리를 했지만, 빠르게 몸을 풀어 연습경기에 등판할 예정이다.

테일러 모터(키움), 로베르토 라모스(LG), 타일러 살라디노(삼성) 등 야수들은 연습경기를 통해 KBO 리그에 적응한다.



**해병대 입소하는 손홍민** 손홍민(오른쪽)은 20일 오후 제주도 모슬포에 위치한 해병 제9 여단 훈련소에 입소했다. 손홍민은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입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지만, 훈련소 앞에는 팬·인근 주민 등 80여명이 몰려들었다. 연합뉴스

## 프로농구 MVP kt 허훈... 대 이은 농구 대통령



MVP 수상한 허훈(왼쪽)과 허재 전 국가대표 감독. 연합뉴스

### 팬 투표 1위·'플레이 오브 더 시즌' 수상 허재 감독 '농구 가족 막내' 실력은 출중

프로농구 부산 kt의 가드 허훈(25·180cm)이 2019-2020 현대모비스 정규리그 프로농구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KBL은 20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수상자들만 초청해 KBL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이날 행사에서 허훈은 기자단 투표 총

111표 가운데 63표를 획득해 생애 첫 정규리그 MVP 영예를 안았다. MVP 상금은 1000만원이다.

허훈과 경쟁한 원주 DB 김종규(29·207cm)는 47표를 받았다.

허재 전 국가대표 감독의 차남인 허훈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평균 14.9점을 넣고 7.2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어시스트 1위를 차지했으며 경기당 3점슛 2개에 이 부문 7위에 올랐다.

국내 선수 득점 부문에서 15점의 송교창(KCC)에 이어 2위에 올라 제 몫을 한 허훈은 올스타 팬 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등 기량과 인기 면에서 최고의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DB를 상대로 3점슛 9개를 연속으로 성공해 KBL 타이거북(조성원 명지대 감독)을 세웠고, 올해 2월에는 안양 KGC인삼공사를 상대로 24점, 21어시스트로 KBL 최초로 한 경기에 20득점, 20어시스트 이상을 기록했다.

허재 전 감독과 DB에서 뛰는 허웅(27·185cm) 등과 함께 '농구 가족'의 막내인 허훈은 프로 정규리그 MVP는 아버지나 형보다 먼저 받게 됐다.

허재 전 감독은 1997-1998시즌 플레이오프 MVP를 수상했으나 정규리그 MVP와는 인연을 맺지 못했다. 다만 프로 출범 이전인 농구대잔치 시절 1991-1992시즌과 1994-1995시즌에 대회 MVP에 선정된 바 있다.

허재 전 감독의 마지막 MVP 시즌인 1994-1995시즌 이후 25년 만에 허훈이 정규리그 MVP를 받은 셈이다.

허훈은 또 이번 시즌 가장 멋진 플레이를 펼친 선수에게 주는 '플레이 오브 더 시즌' 수상자로도 결정돼 경사가 겹쳤다.

### 삼성화재·KB손해보험 팀재건 위해 감독 교체

중하위권에 머문 남자프로배구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이 나란히 팀 '재건'을 목표로 사령탑 교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화재는 신진식(45) 감독과 재계약하지 않기로 하고, 고희진(40) 수석코치의 감독 승격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 KB손해보험은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권순찬(45) 감독과 결별하고, 프랜차이즈 스타 출신의 '왕년의 거포' 이상렬(55) 경기대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내정했다. 2018-2019시즌 4위, 2019-2020시즌 5위에 머문 삼성화재는 사령탑을 포함한 코치진 교체로 분위기를 일신한다는 방침이다.

감독 승격이 유력한 고희진 수석코치는 2003년 삼성화재에 입단해 2015-2016시즌까지 센터로 한 팀에서 서만 된 '삼성맨'이다.

2016-2017시즌 삼성화재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고희진 코치는 계약을 마무리하면 삼성화재의 지휘봉을 잡고 새 시즌 감독으로 데뷔한다.

KB손해보험 사령탑으로 내정된 이상렬 경기대 감독은 빠르면 이번 주중에 구단과 계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순찬 감독은 계약 기간 1년이 남았지만, 팀을 떠났다.

## 한국전력, 박철우와 3년 21억원 FA 계약

### 오재성 잔류·이시몬 영입

박철우(35)가 3년 21억원의 역대 남자 프로배구자유계약선수(FA) 최고 대우로 한국전력과 계약했다.

한국전력은 20일 "박철우와 연봉 5억 5000만원, 옵션 1억5000만원, 계약 기간 3년의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박철우, 이시몬, 오재성(왼쪽부터). 연합뉴스

박철우는 매 시즌 최대 7억원을 받는다. 그동안 프로배구 남자부 공식 최고 연봉이었던 한선수(대한항공)의 6억5000만원을 뛰어넘은 금액이다.

2004년 현대캐피탈에 입단한 박철우는 2010년부터 10년 동안 삼성화재 유니폼을 입었다.

어느덧 30대 중반에 이르렀지만, 박철우는 여전히 녹슬지 않은 기량을 뽐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조기 종료된 2019-2020 정규리그에서 박철우는 득점 7위(444점)에 올랐다.

토종 선수 중에선 지난 시즌 최우수선수(MVP)로 득점 6위를 차지한 나경복(우리카드·491점)에 이어 두 번째로 득점이 많았다. 박철우는 공격 종합 6위(성공률 51.48%), 오픈 공격 4위(50.62%)에 오르며 삼성화

재의 주포로 활약했다.

한국전력은 오재성과 현역 리베로 최고액인 연봉 3억원에 FA 잔류계약을 했다. OK저축은행의 레프트 이시몬은 연봉 1억3000만원에 영입했다.

지난 시즌 최하위에 머문 한국전력은 공격력이 뛰어나고 블로킹 능력도 갖춘 박철우를 영입하고, 이시몬과도 계약해 날개 자원을 보강했다. 또한, 리베로 오재성도 잡으며 도약의 의지를 드러냈다.

장병철 한국전력 감독은 "구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공수 핵심 선수들과 계약하게 되어 만족한다"며 "다음 시즌 더 나은 성적으로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상 장  
제주혁신성장대상

2019년 11월 5일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허영호

제주도 에너지공사

벤처기업

인공지능 기술보유

한화 Q-CELL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따뜻한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  
**나눔에너지**  
인공지능보유 / 벤처인증기업 / 고효율수기업

- 현대에너지 솔루션 소프트웨어 계약 성사
- 제주지역 단일공사 1MW급 최초 스크류공사 시행 (시공성 우수, 안정성 우수\_인발테스트 리포트 결과 기준치 대비 1.5배 강함)
-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테크노파크 주관 제주지역 우수사례업체 선정, 제주혁신성장대상

"도내 1 금융권 최소 금리(2% 후반 ~ 3%초반대)로 금융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2019.06  
제주도청 고효율수기업 선정 / 한화 큐셀 (Q-CELL) 제주도 큐파트너 협력기업

2019.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 - 19  
2년연속 제주도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주) 나눔에너지 |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211호      시공문의 | TEL. 064 - 745 - 0420      FAX. 070 - 8812 - 0420